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차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Received: October 15, 2022
Revised: April 15, 2023
Accepted: May 26, 2023

김명화¹, 이창현²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전문상담사¹, 하나임상심리연구소/ 소장²

교신저자: 이창현
하나임상심리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77,
105-4302

Differences in Nonsuicidal Self-injury behaviors according t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Adolescents:
Focusing on Latent Profile Analysis

E-MAIL:
diapanna@hanaimsang.com

Myung-Hwa Kim¹, Chang-Hyun Lee²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a professional counselor¹
Hana Clinical Psychological Research Institute/ Director²

ABSTRACT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에 의해 집단 유형을 분류한 뒤, 집단별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집단 유형에 따른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빈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전국 고등학교에서 86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그들의 심리적 변인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도출된 프로파일에 따른 비자살적 자해행동 빈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들은 위험집단, 준위험집단, 정서조절부족집단, 경도집단, 보통집단의 총 5개의 집단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둘째, 비자살적 자해행동 빈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셋째, 성별 비율이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의의,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시사점 그리고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비자살적 자해, 우울, 불안,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해러’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리 익숙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 말에 대해 익숙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는데, ‘자해러’란 청소년들이 자해를 한 후, SNS를 통해 자해에 대한 인증샷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백보경 등, 2019). 포털 사이트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유튜브 등에서는 자해에 대한 영상 혹은 인증사진 등 자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으며, 이러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년이다(신성미, 2019; 이수정, 2019). 자해는 자해를 시도하는 의도에 따라서 죽음의 의도를 동반하는 자살적 자해와 죽음에 대한 의도를 동반하지 않은 비자살적 자해로 구분된다(Bresin & Gordon, 2013). 비록 자살의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비자살적 자해는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위험 수준의 문제행동에 해당되며(이동훈, 2010), 반복적 자해행동을 통해 점차 고통에 익숙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감소하면서 결국 자살로 인한 죽음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Joiner, 2005). 실제로 비자살적 자해는 자살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제기(Klonsky et al., 2013),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시행한 70%의 청소년이 자살 시도 경험을 보고하기도 하였다(Nock & Kessler, 2006).

한편, 비자살적 자해행동은 대상에 따라서 치명적 결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하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이 성인이 하는 것에 비해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류현미, 2021).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다른 생애 시기보다 훨씬 더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이 큰 시기이며, 낮은 수준의 언어적 능력이나 사회적 기술로 인해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이나 고통을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정서조절

의 방편으로 자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oss & Heath, 2003).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해문제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2018년에 실시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전체 인원 중 중학생의 7.9%, 고등학생의 6.4%가 자해 경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이재호 등, 2018). 하지만 자해 행동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시행되며 특별한 의료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보면(Nock, 2010), 자해행동의 실제 유병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준보다 더욱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청소년 집단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기초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도 있는 비자살적 자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변인 중심 분석을 통해 수행되어왔다. 변인 중심 분석은 주로 변인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 변인 간 선형적 관계를 확인하는 접근방식으로(허찬욱, 2021), 이는 결과가 간결하게 도출되어 쉬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Hoffman et al., 2017), 분석 단위의 중심이 변인이기 때문에 하위 집단이나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닌다(Bergman & Magnusson, 1997). 그와 더불어 변인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 가능성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최근의 연구들은 비자살적 자해의 유형 혹은 집단 간의 이질성을 밝히는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Dhingra et al., 2016). 이러한 형태의 연구에 적합한 것이 바로 사람 중심 분석이며 그 중에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과 같은 분석 방법

이 대표적이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에서 변인들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Bergman & Trost, 2006; Paster et al., 2007), 이를 통해 변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확인 및 변인들의 결합에 의해 구성되는 집단, 집단의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을 추정하고 적합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수행한다(Hagenaars & McCutcheon, 2002; Nylund et al., 2007). 즉, 집단 내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집단 간에는 이질적 특성을 지니는 복수의 하위집단으로 대상자들을 구분하여 개개인이 하위집단 내에 속할 확률을 추정 및 분류할 수 있게 된다(Vermunt & Magidson, 2002). 따라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변인들의 모델링을 통해 자해 가능성을 예측하는 변인 중심 분석보다 차별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자해를 하는 개인들이 몇 가지의 이질적 집단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집단들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개인의 개별 특성과 기능 체계에 기초하여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Bergman & Magnusson, 1997).

이와 같이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해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기존 연구를 넘어서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들이 드문 실정이다. 권재기(2018)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알려진 자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프로파일을 통해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분류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김지윤과 이동훈(2019)의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자해 관련 위험요인들

을 독립변수로,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성 수준에 따른 세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자해 위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있는 약 700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사용유형을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투입한 후, 도출된 잠재 계층들이 스트레스 반응이나 자해 행동의 빈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성나경 등, 2021). 성나경 등(2021)의 연구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포함되는 다양한 정서조절 방법들의 사용 빈도를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투입하여 잠재계층 간 자해 행동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정서조절 패턴이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의 결과나 이론적 접근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한 위험요인 혹은 보호요인들을 선정한 후, 그러한 변인들을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투입하여 잠재 계층을 도출하게 된다. 이에 현재까지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적 접근들을 살펴보면, 기능 모형(Nock & Prinstein, 2004)과 경험회피 모형(Chapman et al., 2006)이 대두된다. 이 중에서 경험회피 모형(Chapman et al., 2006)은 원치 않는 정서적 각성을 피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해를 시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경험회피 모형에 따르면 정서적 자극을 유발하는 사건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고통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고통에 대한 감내력 혹은 조절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서적 반응을 회피하게 되며, 그러한 회피가 바로 자해 행동에 해당된다. 정서적 고통에 대한 회피의 일환으로 자해를 수행한 사람은 일시

적으로는 부정적 정서가 완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지만, 적응적으로 정서조절을 수행할 능력은 결핍된 상태이므로 자해 행동이 반복되기 쉽다. 따라서 경험회피 모형에서는 정서적 고통 즉 부정적 정서, 정서조절, 경험회피 등이 모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잠재프로파일에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Nock과 Prinstein(2004)이 제안한 비자살적 자해의 기능 모형에 따르면 자해의 기능은 부정적/긍정적 측면과 자동적/사회적 측면의 조합에 의해 총 4가지의 기능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자동적-부정적 강화로 개인 내적으로 고통스러운 정서나 인지적 상태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자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동적-긍정적 강화로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내적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게 된다고 한다. 셋째는 사회적-긍정적 강화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거나 소통하기 위해, 또는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행동으로 자해를 설명한다. 넷째는 사회적-부정적 강화로 대인관계에서의 요구를 피하거나 원치 않는 사회적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험회피는 비자살적 자해의 심리적 기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자살적 자해를 이해하는 주요한 심리적 요소로 확립되어 있다(Angelakis & Gooding, 2021; Brausch & Woods, 2019). 더욱이 본 연구대상에 포함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그로 인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시기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경희, 2009; 한선화, 2006).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는 발달과정 중

에서 적응적 정서조절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McLaughlin et al., 2011).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경험회피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능 모형은 부정적 정서의 감소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의 강화 및 사회적 상황까지 포괄하는 바, 비자살적 자해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들을 포함하고는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제 연구에서는 자동적-부정적 강화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Izadi-Mazidi et al., 2019),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주로 고통스러운 정서의 제거 혹은 감소를 목적으로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기능 모형은 비자살적 자해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적 측면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하겠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연구할 때는 부정적 정서의 감소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실제 양상을 좀 더 적절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 모형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험회피 모형의 주요 요소 중 우선 첫 번째로 부정적 정서에 대해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다루는 변인으로 제시된다(권재기, 2018; 김수진, 2017; 류현미, 2021; 박경애 등, 2020).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적정서는 자해행동 발생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우울과 불안은 여러 부적정서 중에서도 자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서로 언급된다(DiClemente et al., 1991). 추은정(2019)의 연구에서는 불안이 비자살적 자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혁진(2014)의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 수준이 자해 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구훈정 등(2014)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우울과 불안을 경유하여 자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생물학적 성숙, 호르몬 변화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불안, 우울과 같은 기분 조절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이 때의 불안과 우울의 정서적 고통은 자해 행동 발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선훈, 2019). 두 번째, 정서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권혁진(2014)의 연구에서 불안을 자주, 높게 경험하는 참여자들은 심각한 수준의 자해보다는 경도의 자해를 통해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자해가 제한된 정서조절전략으로 사용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구훈정 등(2014)의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학대 받는 경험이 아동에게 정서조절이나 정서표현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자해행동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서조절곤란이 비자살적 자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경험회피는 정서적 자극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통제 혹은 제거하려는 경향을 가리키며(Bardeen & Fergus, 2016), 최근 들어 정신장애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허재홍 등, 2009). 자해와 관련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던 집단에 비해 자해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더 낮은 경험회피 수준을 보였으며(Anderson & Crowther, 2012), 김도연(202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비자살적 자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경험회피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자살적 자해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진 병리적 행동이며, 특히 청소년이 하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은 더욱 심각하다(류현미, 2021). 이에 연구자들은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기존의 변인 중심 분석을 넘어 잠재 프로파일 분석으로 대표되는 사람 중심의 분석을 수행하기에 이르렀으나, 국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드물다. 권재기(2018)는 자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투입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만을 포함하였을 뿐 자해행동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정서조절능력의 평가를 단 3 문항에 의해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정교한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김지윤과 이동훈(2019)의 연구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해 위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규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변인 중심 분석과 유사한 형태의 분석을 시도했다는 제한점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성나경 등(2021)의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시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각 하위전략만을 분석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정서적 고통 자체와 같은 자해 관련 요인들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고, 정서조절 방법의 사용빈도에 따른 패턴을 분석하였기에 정서조절에서의 능숙함, 조절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자살적 자해에 있어서 성인에 비해 더욱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경험회피 모형에서 강조되는 주요한 요소들인 부정적 정서, 정서조절능력, 경험회피를 모두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경험회피 모형에서 강조되는 변인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자해 유경험 고등학생들이 어떠한 잠재적 차이를 내재한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서조절에서의 능숙함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35문항으로 이루어진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비자살적 자해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반면(Conterio & Lader, 1998; Favazza, 1998),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견 또한 계속 제기되고 있다(Jacobson & Gould, 2007; Muehlenkamp & Gutierrez,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의해 도출된 잠재계층이 성별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한편, 상담 장면에서 심리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에 의한 잠재 계층은 어떠한 패턴을 나타내는가?

연구 문제 2. 도출된 잠재 계층 간 비자살적 자해행동 빈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 문제 3. 도출된 잠재 계층과 성별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데이터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약 4주간에 걸쳐 실시한 구글 온라인 설문 조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주로 연구자의 지인이 담임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리스트를 취합한 후 학교의 유형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설문을 모집할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후 각 학교의 학교장의 승인과 학부모 및 학생에게 연구 동의를 얻어 수행되었다. 학부모 동의는 각 반별 담임 교사가 학생을 통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설문 작성은 각 반의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구글 설문 양식의 링크를 학생에게 알려주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설문 작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경우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교사로부터 고지 받고 직접 동의에 체크한 후 설문 작성을 시작하였다. 설문 작성시간은 평균적으로 20~25분가량 소요가 되었으며, 설문을 실시한 이후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과 비자살적 자해 빈도를 평균보다 3표준편차 이상으로 보고한 5명을 제외한 863명의 온라인 설문 결과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전체 연구대상의 비자살적 자해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3.36회와 7.31회로 나타났으며,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은 535명(62.0%), 1회 이상의 비자살적 자해 경험을 보고한 인원은 328명(38.0%)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명으로 이루어진 정서 행동특성검사에서 전체 학생의 7.9%가 비자살적 자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로 국내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연구에 포함된 인

원 중 비자살적 자해를 경험한 비율이 12.37%에서 45.31%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혁진, 권석만, 2017; 성요안나 등, 2019; 안영신, 송현주,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단위 조사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해와 관련된 조사 결과는 실명으로 조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크며, 사회적 낙인이나 시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은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요안나 등, 2019).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N=863)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434	50.3%
	여자	429	49.7%
나이	17세	305	35.3%
	18세	338	39.2%
	19세	220	25.5%
학교유형	일반고등학교	668	77.4%
	특수목적고등학교	3	0.3%
	특성화고등학교	148	17.1%
	자율고등학교	44	5.1%
거주지역	서울	28	3.2%
	부산	49	5.7%
	대구	48	5.6%
	인천	65	7.5%
	광주	57	6.6%
	대전	26	3.0%
	세종	56	6.5%
	경기	130	15.1%
	강원	103	11.9%
	충북	46	5.3%
	충남	47	5.4%
	전북	49	5.7%
	전남	21	2.4%
	경북	52	6.0%
	경남	59	6.8%
	제주	27	3.1%

성별은 여자가 429명(49.7%), 남자가 434명(50.3%)이었으며, 대상자의 연령별 구성은 17세 305명(35.3%), 18세 338명(39.2%), 19세 220명(25.5%)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7.90세, 0.77세였다. 학교 유형은 일반고등학교에 소속된 인원이 668명(77.4%), 특수목적고등학교 3명(0.3%), 특성화고등학교 148명(17.1%), 자율고등학교 44명(5.1%)이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서울 28명(3.2%), 부산 49명(5.7%), 대구 48명(5.6%), 인천 65명(7.5%), 광주 57명(6.6%), 대전 26명(3.0%), 세종 56명(6.5%), 경기 130명(15.1%), 강원 103명(11.9%), 충북 46명(5.3%), 충남 47명(5.4%), 전북 49명(5.7%), 전남 21명(2.4%), 경북 52명(6.0%), 경남 59명(6.8%), 제주 27명(3.1%)이었다.

연구도구

우울, 불안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의 아동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를 오경자 등(2001)이 번안하여 청소년에 맞게 표준화한 아동

행동평가척도 중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우울, 불안 14개의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과 불안에 대한 각각의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또는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우울 측정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69이었고,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7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

본 연구에서는 Gratz와 Roemer(2004)의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36문항을 조용래(2007)가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지각 부족, 충동통제곤란, 정서의 비수용성, 정서의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전략의 접근 제한, 목표지향적 행동수행의 어려움의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거의 그렇지 않다', 5점='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해당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8이었다.

경험회피

본 연구는 경험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수용-행동 질문지(Korean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K-AAQ-II)를 사용하였다. 이는 Bond 등(2011)의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AAQ-II)를 허재홍 등(2009)이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총 문항은 10개 문항으로, 수용전념치료에서 제안한 경험회피를 평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경험회피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항상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해당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5이었다.

비자살적 자해 행동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를 측정하기 위해 Lloyd-Richardson 등(1997)이 개발한 자해기능 평가지(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 FASM)를, 권혁진(201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이 평가지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영역은 1년 또는 그 이전의 비자살적 자해빈도와 방법을 측정하는 12 문항을 포함하며 각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0점='전혀 없음', 1점=1회, 2점=2회, 3점=3회, 4점=4회, 5점=5회, 6점=6회 이상)로 평정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비자살적 자해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대한 자살의도 유무, 시작 연령, 실행 전 준비시간,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대한 6문항을 포함한다. 세 번째 영역은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목적과 이유를 보고하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0점=전혀, 3점=자주)로 평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역의 측정치는 사용하지 않고 첫 번째 영역만을 사용하여 개인별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빈도의 합계를 계산하여 잠재계층별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빈도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권혁진(2014)의 연구에서는 DSM-5 비자살적 자해 진단을 고려하여 모발뽑기장애, 피부벗기기 장애와 중복되는 3번, 11번 문항 그리고 국내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문신 내용이 포함된 4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문항 점수는 비자살적 자

해행동 빈도의 총합을 산출하여 분석하며, 자해 빈도의 총합이 클수록 비자살적 자해를 더 자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빈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심각도에 따른 비자살적 자해방법의 분류와 관련된 선행연구(Lloyd-Richardson et al., 2007; Skegg, 2005)를 토대로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방법의 심각도의 수준에 따라 머리카락 뽑기, 상처 꼬집기, 피부 긁기 등은 가장 심각도가 낮은 '하'수준으로 분류하였고, 자신을 때리기, 물체를 피부 속에 찔러넣기, 깨물기 등은 '중'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칼로 피부를 긁거나 새기기, 담배나 성냥 등으로 피부를 불로 지지기, 문신하기, 살갓을 벗기기 등은 가장 심각도가 높은 '상'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해당 척도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는 전체 비자살적 자해행동 .888, 상수준은 .718, 중수준은 855, 하수준은 .867로 나타났다. 자해 행동과 목적 보고 관련 영역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는 .932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처리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군집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군집의 개수를 확정하는 것이지만, 그와 관련된 절대적 기준이나 일반화된 이론은 없다. 그러므로 잠재 계층 개수는 해석 가능성, 명확성, 프로파일 크기, 이론적 및 과학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Jung & Wickrama, 2008). 즉, 통계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적합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뿐만 아니라 유형별 사례 수 및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등의 정보준거지수 및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BLRT;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Peel & McLachlan, 2000)을 기반으로 하여 판단하면서, 전체적인 프로파일 양상에 따른 해석 가능성과 계층의 유의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모형기반 군집 분석 중 하나로서 연속형 관찰 변인을 분석에 사용한다. 계층적 군집 분석이나 K-평균 군집 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군집 분석은 군집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통계적 기준이 제공되지 않는 반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모형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AIC, BIC 등과 같은 정보준거지수(information criterion indices)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BLRT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우도비 검증(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군집 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 K-평균 군집 분석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Magidson & Vermunt, 2002). BLRT는 모수적

부트스트래핑 방법(parametric bootstrapping)을 적용한 것으로, k(대립가설)와 k-1(영가설) 간의 통계검증을 통하여 계층 결과를 비교하여 k의 지지 여부(k-1의 기각 여부)를 확정하는 확률값을 제공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k(대립가설)를 지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트스트랩 표본의 반복생성을 통해 k-1 계층모형과 k 계층모형에 대한 우도비에 대한 분포를 구하여 검증하는 방식이다(Nylund et al., 2007).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하여 추출된 잠재 계층에 따라 성별에서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카이제곱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기대빈도가 5 미만 셀들이 있을 경우에는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잠재 계층을 확정된 후 각 잠재프로파일별로 자해빈도 수준의 차이가 유의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Scheffe 검정법을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우선 주요 변인들의 Pearson 상관계수 및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후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되었듯, 모든 변인들 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은 우울,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 및 비자살적 자해빈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순서대로 $r = .64, p < .001$; $r = .50, p < .001$; $r = .54, p < .001$; $r = .29, p < .001$). 아울러, 우울은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 및 비자살적 자해빈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 = .61, p < .001$; $r = .69, p < .001$; $r = .36, p < .001$), 정서조절곤란 역시 경험회피, 비자살적 자해빈도 간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 = .77, p < .001$; $r = .34, p < .001$). 마지막으로 경험회피는 자해빈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39, p < .001$).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N=863)

	1	2	3	4	5
1. 불안	1				
2. 우울	.635***	1			
3. 정서조절곤란	.502***	.612***	1		
4. 경험회피	.541***	.689***	.765***	1	
5. 자해빈도	.288***	.363***	.337***	.389***	1
평균	6.56	6.41	84.39	31.61	3.36
표준편차	4.35	3.98	23.88	10.89	7.31
첨도	.15	.16	-.53	.47	12.40
왜도	.63	.55	.26	.55	3.26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뒤 표 2에 제시하였다. Finch와 West(1997)는 측정변수들의 왜도는 절대값 2 그리고 첨도는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인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잠재계층의 갯수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잠재

프로파일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2계층 모형에서부터 계층 수를 1개씩 늘려가며 정보준거지수와 우도비 검증 통계량을 비교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모형의 정보준거지수를 살펴보면, 각 계층 간 AIC 지수 및 BIC 지수는 2계층 모형부터 계층 수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분류정확도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정보지수인 Entropy 지수는 계층 수가 5개일 때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결과는 2계층 모형부터 5계층까지는 적합했으나, 6계층부터는 적합하지 않은

표 3.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N=863)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6
정보 지수	AIC	8651.500	8244.803	8097.220	8000.592	7976.960
	BIC	8713.385	8330.490	8206.709	8133.884	8134.054
	Adjusted BIC	8672.101	8273.327	8133.667	8044.963	8029.254
	Entropy	0.821	0.831	0.782	0.835	0.828
우도 비율 검증	비교	1 vs 2	2 vs 3	3 vs 4	4 vs 5	5 vs 6
	VLMR LR 검증 유의확률	< .001	< .001	< .001	.010	.048
	LMR LR 검증 유의확률	< .001	< .001	.015	< .001	.575
	BLRT 유의확률	< .001	< .001	< .001	< .001	< .001
분류율	1	62.57%	44.50%	23.75%	6.49%	22.71%
	2	37.43%	44.61%	39.17%	23.17%	32.56%
	3		10.89%	8.92%	32.68%	9.04%
	4			28.16%	28.62%	6.37%
	5				9.04%	1.16%
	6					2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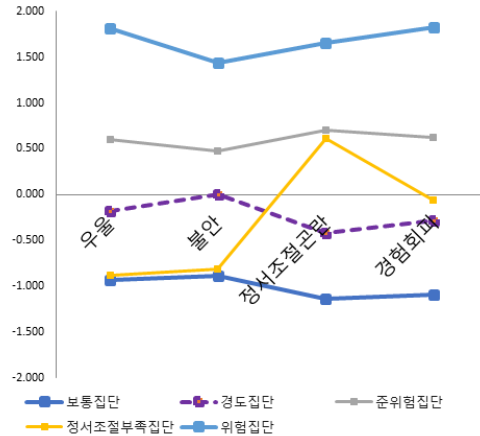
주.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VLMR LR: 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MR LR =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BLRT =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5계층 모형의 AIC 지수 및 BIC 지수는 6계층 모형 다음으로 양호하였으며, Entropy 지수는 가장 높았다. 6계층 모형은 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에서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잠재 계층으로 이루어진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5계층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심리적 변인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잠재계층의 유형과 특성

다음으로 각 잠재 계층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잠재 계층 이름을 명명하고 표 4와 그림 1에 측정 변인의 각 잠재집단 추정 평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잠재 계층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원점수가 아닌 표준화된 점수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변인 별로 평균 점수를 구한 후, 개인별 원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 값을 해당 변인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별 표준화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 개인별 표준화 점수를 통해 잠재 계층별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잠재 계층 1에 속한 집단은 ‘보통집단’으로 명명



주. Y축은 표준화 점수임.

그림 1. 잠재프로파일 유형

하였으며, 전체 인원 중 23.17%가 이 잠재 계층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집단은 불안, 우울, 정서조절 곤란, 경험회피가 대체로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만큼 낮게 나타났다. 잠재 계층 1에 속한 집단의 84% 가량 인원은 비자살적 자해행동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학생이지만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대해 심리적으로 예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하지 않는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학생이라는 의미를 담아 ‘보통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잠재 계층 2에 속한 집단은 ‘경도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인원 중 32.68%가 이 잠재 계층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

표 4. 각 잠재 계층별 추정된 평균점수(N=863)

잠재 계층	불안	우울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	분류율
보통집단	-.931	-.891	-1.138	-1.087	23.17%
경도집단	-.175	.005	-.420	-.278	32.68%
준위험집단	.606	.472	.701	.628	28.62%
정서조절부족집단	-.884	-.809	.617	-.062	6.49%
위험집단	1.813	1.435	1.660	1.827	9.04%

층은 불안, 우울,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약 0.5 표준편차 내 범위에 위치하면 서도 평균보다 좀 더 낮았다.

잠재 계층 2에 속한 집단원들의 약 35%에 해당 하는 인원이 2회 이상의 자해, 즉 반복적 자해를 경험한 점을 감안하여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빈도가 더 증가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은 비자살 적 자해행동의 심각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 여 '경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계층 3에 속한 집단은 '준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인원 중 약 28.62%가 이 잠재 계층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층은 불안, 우울,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 점 수가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범위 내에 위치해 있었으며, 모든 점수가 평균보다 컸다. 부정적인 심리적 변인들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약 62% 정도의 인원이 반복적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하며, 10회 이상의 자해를 경험한 경우도 14%에 해당하는 바, 위험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한 집단이라는 의미를 담아 '준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계 층 4에 속한 집단은 '정서조절부족집단'으로 명명 하였으며, 전체 인원 중 약 6.49%가 이 잠재 계층 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층의 불안과 우울 점수 는 평균에서 대략 1 표준편차만큼 낮게 나타났으 며, 정서조절곤란 점수는 거의 표준편차 0.5 만큼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 있었다. 그 외, 경험회피는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이 집단은 우울과 불안에 비해 정서조절곤란과 경험회피 수준이 현 저하게 높으며, 특히 정서조절곤란이 높게 상승해 있는 바, '정서조절부족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계층 5에 속한 집단은 '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으 며, 전체 인원 중 약 9.04%가 이 잠재 계층에 포 함되어 있었다. 이 계층의 불안, 우울,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 점수가 평균에서 약 1.0 ~ 1.5 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유형에 따른 비자살적 자해행동 빈도 차이

잠재 계층별 다음으로 비자살적 자해행동 빈도에 대한 잠재 계층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한 결과(표 5), 전체 비자살적 자해행동 및 심각도에 따라 구분된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모든 유형에서 계층 간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전체 자해 빈도에 대한 잠재계층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 858) = 43.41, p < .001$). 다음으로 심각도가 상수준에 해당하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빈도 역시 잠재계층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 858) = 16.76, p < .001$). 다음으로 심각도가 중수준에 해당하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빈도 역시 잠재계층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 858) = 37.94, p < .001$). 다음으로 심각도가 하수준에 해당하는 자해행동의 빈도 역시 잠재계층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F(4, 858) = 42.94, p < .001$). 사후검 증에서는 전체 비자살적 자해행동 및 모든 유형의 비자살적 자해행동에서 위험집단이 다른 네 가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비자살적 자해행동 의 빈도를 나타냈다. 중수준의 심각도로 분류되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빈도는 보통집단과 경도집단 에 비해 준위험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각 잠재계층이 성별과 맺는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Pearson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 5),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5, N=863) = 11.13, p < .05$).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서조절부족집단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약

표 5. 자해행동 빈도의 잠재 계층별 차이(N=863)

변인	구분	1	2	3	4	5	F	사후검증
	n	56	200	282	247	78		
전체	<i>m</i>	2.18	1.32	1.87	4.19	12.17	43.412***	1, 2, 3, 4 < 5
	<i>sd</i>	7.08	4.77	4.78	7.15	12.51		
상수준	<i>m</i>	0.57	0.27	0.38	1.00	2.77	16.758***	1, 2, 3, 4 < 5
	<i>sd</i>	3.22	1.85	1.70	2.84	4.15		
중수준	<i>m</i>	0.91	0.76	1.07	2.21	5.50	37.943***	1, 2, 3, 4 < 5 2, 3 < 4
	<i>sd</i>	2.94	2.46	2.43	3.48	5.41		
하수준	<i>m</i>	1.52	0.68	0.97	2.31	6.86	42.941***	1, 2, 3, 4 < 5
	<i>sd</i>	4.40	2.73	2.58	4.08	7.23		
성별	남	22 (39.3%)	99 (49.5%)	142 (50.4%)	115 (46.6%)	51 (65.4%)	11.132 ^a	
	여	34 (60.7%)	101 (50.5%)	140 (49.6%)	132 (53.4%)	27 (34.6%)		

주. 1=정서조절부족집단, 2=보통집단, 3=경도집단, 4=준위험집단, 5=위험집단

a. 성별의 통계치는 ² 값임.

p* < .05, **p* < .001.

4:6 정도로 나타난 바,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 청소년의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험집단의 경우에는 약 65:35 정도의 비율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여자 청소년의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집단, 경도집단, 준위험집단의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잠재계층과 성별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요 심리사회적 변인에 기반을 둔 이질적 집단으

로 분류한 후, 각 집단의 특성과 더불어 각 집단별로 자해 빈도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향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의 분석에 따라 도출된 잠재계층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5개의 잠재계층이 확인되었다. 위험집단, 준위험집단, 경도집단, 정서조절부족집단, 보통집단의 5개 집단이 도출되었으며, 6.49%에서 32.68%에 걸친 비율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부족집단은 6.49%의 비율로 다른 집단에 비해 비율이 적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비율의

잠재계층이 나타나는 것은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Ferguson et al., 2020). 또한, 비록 본 연구에서는 적은 비율로 나타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고등학생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그에 해당하는 인원이 적지 않으며, 집단의 특성 또한 의미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단 구분에 포함되었다. 전반적인 패턴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집단, 준위험집단, 경도집단, 보통집단에서는 우울이나 불안,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의 네 가지 변인이 위험집단에서 가장 높고 보통집단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패턴을 나타냈다. 반면, 정서조절부족집단은 이러한 패턴과는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정서조절부족집단은 우울과 불안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가장 낮고 안정적인 패턴을 나타낸 보통집단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조절곤란 및 경험회피 영역에서는 보통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우울이나 불안에서는 보통집단과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나, 정서조절곤란과 경험회피에서는 훨씬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였다(그림 1). 정서조절이 집단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측면에서는 선행 연구(권재기, 2018)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에서 높은 우울 점수와 낮은 정서조절 점수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조절부족집단과 같은 패턴을 나타낸 잠재계층은 도출되지 않았다. 권재기(2018)의 연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서조절은 3개 문항으로 측정했던 바, 단 3개의 척도만으로는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해내는 민감도에 제한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35문항으로 구성된 정서

조절곤란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정서조절능력을 보다 민감하게 탐지할 수 있어 정서조절부족집단과 같이 특이한 잠재계층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서조절부족집단에서 나타난 패턴은 해당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낮은 정서 인식 수준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서 인식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바(Salovey & Mayer, 1990), 정서조절부족집단 구성원들이 실제로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으나 정서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다섯 개의 잠재 계층별 비자살적 자해빈도에서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해빈도는 위험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준위험집단, 정서조절부족집단, 경도집단, 보통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에서는 위험집단과 나머지 네 가지 집단 간의 차이가 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수준의 심각도에 해당하는 비자살적 자해행동 빈도에서 보통집단 및 경도집단과 준위험집단 간 빈도의 차이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석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조절부족집단이 경도집단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자해 빈도를 나타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정서조절부족집단의 우울 및 불안은 경도집단에 비해 거의 1표준편차 정도가 낮으며, 보통집단과 더불어 우울과 불안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해 빈도는 경도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후검증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서조절부족집단에 속한 인원중 실제로 자해경험을 보고한 인원은 약 23% 가량이므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도

집단보다 정서조절부족집단의 비자살적 자해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고려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조절부족집단 구성원들이 실제로는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 비자살적 자해를 행동화하고 있으나, 부족한 정서 인식 능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양호한 상태인 것처럼 보고했을 수 있다. 아울러, 정서 인식의 부족이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보고된 것을 고려해보면(Gatta et al., 2006), 정서조절부족집단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경도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자살적 자해를 나타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고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인식을 포함한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평가 또한 중요하며, 특히 정서 인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지닌 정서조절능력의 수준이 정서적 고통 수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간주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심각도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별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빈도가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였던 바, 전체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와 거의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사후분석에서는 위험집단이 나머지 네 가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 것을 고려할 때, 특정한 개인이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심각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종류에 대한 파악보다는 전반적인 비자살적 자해행동

의 빈도에 좀 더 비중을 둔 평가가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5번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구분하고 있는 바, 5회 이상을 반복성 자해, 5회 미만을 삽화성 자해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하면 위험집단은 반복성 자해에 해당하며, 나머지 네 집단은 삽화성 자해에 해당하는 바, 본 연구의 결과는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제시한 맥락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삽화성 자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자살적 자해 중에서도 반복적 행태를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경험회피의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Howe Martin et al., 2012) 청소년들에게 경험회피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개입은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예방 및 감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험회피 모형(Chapman et al., 2006)에서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이라는 요소와 이러한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능력으로서의 정서조절, 정서조절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서적 체험을 회피하는 경험회피 등을 모형의 핵심요소로 포함하고 있는바, 이론적 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잘 반영한다면, 각 요소들의 수준은 집단별로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수준이 높게 나타날수록 비자살적 자해 행동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서조절부족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집단들은 이러한 예측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수준은 비슷

했으며,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비자살적 자해 또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반면, 경험회피 모형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결과들도 나타났다. 우선 정서조절부족집단과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정서적 고통과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곤란을 나타낸 바, 변인들의 수준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경험회피 모형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통집단이나 경도집단의 경우 모든 변인이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수준을 나타냈지만, 평균 1.32회에서 1.87회의 비자살적 자해빈도를 나타낸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두 집단에서 나타난 양상은 경험회피 모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두 집단에 포함된 구성원들은 자동적-긍정적 강화 기능 혹은 사회적-긍정적 강화 기능과 같은 이유로 비자살적 자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하여 기능 모형(Nock & Prinstein, 2004)에서 가정하고 있는 측면들 또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와 더불어 정서적 고통 혹은 정서조절에서의 문제가 시사되는 집단(정서조절부족집단, 준위험집단, 위험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통집단, 경도집단)에 비해서 비자살적 자해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 바, 비자살적 자해 위험성의 수준에 따라서 상이한 기능들이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비자살적 자해 위험 수준과 다차원적 기능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탐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으로 정서조절부족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존재는 학교 및 상담 현장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현장 혹은 학교 상담 장면에서 우울이나 불안 증상과 같은 정서적 고통의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여러 청

소년들이 비슷한 수준의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동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질적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정서적 고통의 수준에 대해서만 평가하기보다는 정서조절능력의 수준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함을 본 연구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부족집단은 경험회피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청소년들의 자해 위험도를 평정할 때, 개개인이 호소하는 정서적 고통의 수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서조절 능력이나 경험회피와 같은 심리적 자원의 평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중단한 사람은 자해를 지속하는 사람보다 낮은 경험적 회피를 보고하며(Horgan & Martin, 2016),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빈도의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보고한다는 연구 결과들(Howe-Martin et al., 2012)을 고려해볼 때, 상담 현장에서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에서 단순히 정서적 고통의 완화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서조절 능력이나 경험에 대한 수용과 같은 심리적 자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더욱 유익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우선 김지운과 이동훈(2019)의 연구에서 정서조절곤란은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여러 요소들을 통해 구분된 경미형, 중도형, 심각형의 세 집단의 구분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비자살적 자해행동과 관련된 위험군과 비위험군 간 구분에 있어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변인이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고려해보면 일단

김지윤과 이동훈(2019)의 선행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의 기능이나 방법, 초발 연령 등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포함된 여러 특성들로 잠재 계층을 도출한 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잠재 계층 간 구분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찾아내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변인을 통해 자해 관련 위험군을 예측하는 방식은 본 연구에서 취한 사람 중심의 분석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성나경 등(2021)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해당 연구는 본 연구에서처럼 정서조절에 능숙한 정도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지적 정서조절 방법을 사용하는 빈도를 가지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 둘 다 정서조절을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하여 포함하였으나, 기존 연구는 정서조절에만 국한되어 잠재계층을 도출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이외에 다른 자해 관련 요인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한꺼번에 투입되었을 때 어떤 패턴으로 전체 집단을 분류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권재기(2018)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과정에서 정서조절을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35개 문항을 사용하여 정서조절곤란 수준을 평가한 본 연구와 달리 3개 문항만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측정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잠재계층과 성별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성별 비율이 집단에 따라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정서조절부족 집단에서는 4:6 정도로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으며, 위험집단의 경우에는 약 65:35 정도의 비율로 남자 비율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Bresin과 Schoenleber(2015)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비자살적 자해의 성별 차이는 일관되지 않으며 연구에 따라 유의성 여부에서 편차가 존재하며, 다만 표본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별 차이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과 일치하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의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해의 하위집단과 성별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하위집단별로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Hamza & Willoughby, 2013). 본 연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집단들은 남녀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정서조절부족집단에서는 여자가, 위험집단에서는 남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에서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해행동에서 성별이 가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으로 경험회피 모형(Chapman et al., 2006)에 근거하여 성별의 차이가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면 정서조절에서의 성별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Goubet & Chrysikou, 2019). 선행 연구에서는 남녀 간 정서조절에서의 질적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여성은 정서조절을 더욱 자주 시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남성은 보다 자동적이고 효율적인 정서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ubet & Chrysikou, 2019). 즉,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남녀는 각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성은 보다 효율적인 정서조절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을, 그리고 남성은 양적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조절의 결핍이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서조절 능력의 결핍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을 식별하여 자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Brausch & Woods, 2019).

본 연구결과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기반을 두어 잠재 계층을 구분하고 잠재 계층에 따른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서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 전국 단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성인 혹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다룬 잠재 프로파일 연구들이 수행된 적이 있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전국 각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주제로 하는 잠재 프로파일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었다. 성나경 등(2021)의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김지윤과 이동훈(2019)의 연구에서는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수행될 보다 심도 있는 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비자살적 자해 연구에 대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살 혹은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 중심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잠재 계층 중에서 '정서조절부족집단'은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 증상에서는 여러 잠재 계층 중에서 '보통집단'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비자살적 자해빈도에서는 '보통집단'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우울이나 불안만으로 자해 빈도를 예측한다면 이러한 특성을 지닌 집단에 속한 학생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즉,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이나 혹은 임상 장면에서 정서적

고통의 수준을 통해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식, 즉 변인을 통해 자해를 예측하는 방식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이 특정 영역의 점수를 통해 예측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점수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합하여 자해를 예측하는 방식이 좀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Franklin et al., 2017). 이러한 방식으로는 본 연구와 같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을 활용한 방법들도 자살 관련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Franklin et al., 2017).

셋째,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 관련 연구에서 정서 증상이 아닌 정서조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비록 비율로만 보면 '정서조절부족집단'은 전체 인원 중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고등학생 전체로 보면 그 비율에 속하는 인원이 결코 적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서조절부족집단'의 특징이 낮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이므로 임상 현장에서 정서조절능력의 평가를 포함하고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자해와 관련된 위험군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험군에 대한 상담이나 심리치료 시에도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습득과 훈련을 통해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성나경 등, 2021).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 설문지에만 의존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과거를 기억해내야 하며, 비자살적 자해를 행할 당시의 인지와 정서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존재한

다. 하지만 자해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정서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고통스러운 정서를 언어화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Pipher, 1998)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과거에 회고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측정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이하 EMA)와 같은 방법이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해 행동이나 정서적 측정치에 대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억에서의 편향 감소 혹은 반복적인 평가에 의한 신뢰도 증가와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fford, 2007).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EMA와 같은 측정 방법을 포함한다면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더욱 신뢰롭게 측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해 행동 당시 혹은 자해 행동 전후의 심리적 측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된 인지적 측면 즉 자해 사고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살 사고 역시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함께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자해 행동의 빈도와 심각성은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의 위험성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Andover & Gibb, 2010; Hamza & Willoughby, 2013). 또한,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서 뿐만 아니라 자살사고나 분노사고, 초기부적응 도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도 중요한 개인내적 변인 중 하나로 제시된다(박경애 등, 2020). 그리고 비자살적 자해 행동과 자살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hingra, et al., 2016). 따라서 자살과 연관되면

서도 인지적 측면을 포함하는 자살사고나 비자살적 자해행동과 연관된 인지적 측면의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해 사고 등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표집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여 연구 대상을 모집하였으며, 학교 유형 또한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 여러 유형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학교 유형의 비율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이를 반영한 표집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연구는 층화표집 등과 같이 좀 더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김도연 (2020).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단절 및 거절도식과 심리적 유연성 부족의 순차적 매개역할**.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17).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요인과 보호

- 요인 개관. **청소년학연구**, 24(9), 31-53.
<https://doi.org/10.21509/KJYS.2017.09.24.9.31>
- 김수진 (2019). 청소년의 충동성이 자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0(1), 273-298.
<https://doi.org/10.22836/kaswpr.2019.10.1.273>
- 김지윤, 이동훈 (2019). 성인의 비자살적 자해 잠재 계층유형의 위험요인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205-1247.
<https://doi.org/10.23844/kjcp.2019.11.31.4.1205>
- 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강도와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191-216.
- 권혁진 (2014).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지적 요인의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혁진, 권석만 (2017). 한국판 자해기능 평가지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 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1), 187-205.
- 권재기 (2018). 아동·청소년의 자살위험 프로파일과 자살생각 지도(Suicide-thinking Map)를 통한 자살위험 예측.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162-230.
- 류현미 (2021).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 김지연, 강남이, 김숙진, 윤희옥 (2020).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에 대한 국내연구동향: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청소년연구**, 31(3), 213-250.
<https://doi.org/10.14816/sky.2020.31.3.213>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보겸, 김지인, 권호인 (2019). 자의식적 부정정서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3), 385-395.
- 백선혜 (2019). **청소년 자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나경, 성현준, 이지혜 (2021).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사용유형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반응과 자해행동의 차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4), 89-111.
- 성요안나, 배유빈, 김소정 (2019).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국내연구 개관: 2000-2018년 연구들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9(2), 251-280.
<https://doi.org/10.33703/cbtk.2019.19.2.251>
- 신성미, 권경인 (2019). '자해'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상담학연구**, 20(6), 273-295.
- 안영신, 송현주 (2017).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3(4), 257-281.
<https://doi.org/10.33770/JEBD.33.4.13>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희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중앙적성출판사.
- 이경희 (2009). 중·고등학생의 정서조절전략과 학교생활 적응.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2), 159-169.
- 이동훈, 양미진, 김수리 (2010). 청소년 자해의

- 이해 및 특성에 대한 고찰. *Korea Journal*, 18(1), 1-24.
- 이수정 (2019).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조윤자 (2008). 청소년 자살의 심리적 과정 및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의 보호효과. *사회연구*, 9(2), 105-143.
- 이재호, 조윤영, 전정운 (2018. 11. 11.) [단독] 중고생 7만여명 “자해 경험”...우리 아이는 상관없다고요?, 한겨레21. Available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668.html.
- 이지연, 현명호 (2020).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stress*, 28(4), 262-268. <https://doi.org/10.17547/kjsr.2020.28.4.262>
- 이지영 (2012). 연령증가에 따른 정서조절의 차이: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83-808.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4), 1015-1038.
- 추은정 (2019). **부정정서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자해갈망의 매개효과와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감정표현불능증,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선화 (2006). **청소년의 정서성과 정서조절전략 및 자기통제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찬욱 (2021). **성격강점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강점유형별 선행 및 결과변인 차이 검증**.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 (2009).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 2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61-878.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91). Child behavior checklist. *Burlington (Vt)*, 7, 371-392.
- Akaike, H. (1973). Information theory and an extension of the maximum likelihood principle. In B. N. Petrov & F. Csaki (Eds.),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formation Theory* (pp. 267-281). Budapest: Akademiai Kiado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52, 317-332. https://doi.org/10.1007/978-1-4612-1694-0_2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derson, N. L., & Crowther, J. H. (2012). Using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of non-suicidal self-injury: Understanding who stops and who continue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6(2), 124-134. <https://doi.org/10.1080/13811118.2012.667329>
- Andover, M. S., & Gibb, B. E. (2010). Non-suicidal self-injury, attempted suicide, and suicidal intent among psychiatric inpatients. *Psychiatry*

- research*, 17(1), 101-105.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0.03.019>
- Angelakis, I., & Gooding, P. (2021). Experiential avoidance in non suicidal self injury and suicide experienc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51(5), 978-992.
<https://doi.org/10.1111/sltb.12784>
- Bardeen, J. R., & Fergus, T. A. (2016). The interactive effect of cognitive fus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on anxiety, depression, 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5(1), 1-6.
<https://doi.org/10.1016/j.jcbs.2016.02.002>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https://doi.org/10.1017/S095457949700206X>
- Bergman, L. R., & Trost, K. (2006). The Person-Oriented Versus the Variable-Oriented Approach: Are They Complementary, Opposites, or Exploring Different Worlds?. *Merrill-Palmer quarterly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52(3), 601-632.
- Bond, F. W., Hayes, S. C., Baer, R. A., Carpenter, K. M., Guenole, N., Orcutt, H. K., ... & Zettle, R. D. (2011).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 II: A revised measure of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Behavior therapy*, 44(4), 676-688.
<https://doi.org/10.1016/j.beth.2011.03.007>
- Bond, F. W., Hayes, S. C., Baer, R. A., Carpenter, K. M., Orcutt, H. K., Bresin, K., & Gordon, K. H. (2013). Changes in negative affect following pain (vs. nonpainful) stimulation i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nonsuicidal self-injury.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4(1), 62.
<https://doi.org/10.1037/a0025736>
- Brausch, A. M., & Woods, S. E. (2019). Emotion regulation deficits and nonsuicidal self-injury prospectively predict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9(3), 868-880.
<https://doi.org/10.1111/sltb.12478>
- Bresin, K., & Schoenleber, M. (2015).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nonsuicidal self-injury: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8, 55-64.
<https://doi.org/10.1016/j.cpr.2015.02.009>
- Chapman, A. L., Gratz, K. L., & Brown, M. Z. (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3), 371-394.
<https://doi.org/10.1016/j.brat.2005.03.005>

- Conterio, K., & Lader, W. (1998). *Bodily harm*. New York: Hyperion.
- Dahlström, Ö., Zetterqvist, M., Lundh, L. G., & Svedin, C. G. (2015). Functions of nonsuicidal self-injury: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in a large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Psychol Assess*, 27(1), 302 - 313.
<https://doi.org/10.1037/pas0000034>
- Dhingra, K., Boduszek, D., & Klonsky, E. D. (2016). Empirically derived subgroups of self injurious thoughts and behavior: Application of latent class analysi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46(4), 486-499.
<https://doi.org/10.1037/pas0000034>
- DiClemente, R. J., Ponton, L. E., & Hartley, D. (1991).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cutting behavior: Risk for HIV transmi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0(5), 735-739.
[https://doi.org/10.1016/S0890-8567\(10\)80007-3](https://doi.org/10.1016/S0890-8567(10)80007-3)
- Favazza, A. R. (1998). The coming of age of self-mutilat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6(5), 259-268.
- Ferguson, S. L., G. Moore, E. W., & Hull, D. M. (2020). Finding latent groups in observed data: A primer on latent profile analysis in Mplus for applied resear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4(5), 458-468.
<https://doi.org/10.1177/0165025419881721>
- Finch, J. F., West, S. G., & MacKinnon, D. P. (1997). Effects of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on the estimation of mediated effects in latent variabl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4(2), 87-107.
<https://doi.org/10.1080/10705519709540063>
- Franklin, J. C., Ribeiro, J. D., Fox, K. R., Bentley, K. H., Kleiman, E. M., Huang, X., ... & Nock, M. K. (2017). Risk factors for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 meta-analysis of 50 years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43(2), 187.
<https://doi.org/10.1037/bul0000084>
- Gatta, M., Dal Santo, F., Rago, A., Spoto, A., & Battistella, P. A. (2016). Alexithymia, impulsiveness, and psychopathology in nonsuicidal self-injured adolescents. *Neuropsychiatric Disease and Treatment*, 12, 2307-2317.
- Goubet, K. E., & Chrysikou, E. G. (2019). Emotion regulation flexibility: Gender differences in context sensitivity and repertoire. *Frontiers in psychology*, 10, 935.
<https://doi.org/10.3389/fpsyg.2019.00935>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https://doi.org/10.1023/B:JOBA.0000007455.08539.94>
- Hagenaars, J. A., & McCutcheon, A. L. (Eds.). (2002).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za, C. A., & Willoughby, T. (2013).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behavior: A latent class analysis among young adults. *PLoS one*, 8(3), e59955.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59955>
- Hoffmann, T., Bennett, S., & Del Mar, C. B. (2017). *Evidence-based practice across the health professions-E-pub (3rd ed.)*. NSW: Elsevier Health Sciences.
- Horgan, M., & Martin, G. (2016). Differences between current and past self-injurers: how and why do people stop?.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22(2), 142-152.
<https://doi.org/10.1080/13811118.2015.1004479>
- Howe Martin, L. S., Murrell, A. R., & Guarnaccia, C. A. (2012). Repetitive nonsuicidal self injury as experiential avoidance among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7), 809-829.
<https://doi.org/10.1002/jclp.21868>
- Hufford, M. R. (2007). Special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The science of real-time data capture: Self-reports in health research*, 54-75.
- Jacobson, C. M., & Gould, M. (2007). The epidemiology and phenomenology of non-suicidal self-injurious behavior among adolescent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2), 129-147.
<https://doi.org/10.1080/13811110701247602>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54.x>
- Klonsky, E. D., Glenn, C. R., Styer, D. M., Olin, T. M., & Washburn, J. J. (2015). The functions of nonsuicidal self-injury: converging evidence for a two-factor structur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9(1), 1-9.
<https://doi.org/10.1186/s13034-015-0073-4>
- Klonsky, E. D., May, A. M., & Glenn, C. R.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attempted suicide: converging evidence from four sam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1), 231.
- Izadi-Mazidi, M., Yaghubi, H., Mohammadkhani, P., & Hassanabadi, H.

- (2019). Assessing the functions of non-suicidal self-injury: factor analysis of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 among adolescents.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84.
- Lloyd-Richardson, E. E., Kelley, M. L., & Hope, T. (1997). Self-mutil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provisional prevalence rates. *Poster sess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Behavioral Medicine*, New Orleans, LA.
- Magidson, J., & Vermunt, J.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1), 36-43.
- McLaughlin, K. A., Hatzenbuehler, M. L., Mennin, D. S., & Nolen-Hoeksema, S. (2011). Emotion dysregulation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9), 544-554.
<https://doi.org/10.1016/j.brat.2011.06.003>
- Muehlenkamp, J. J., & Gutierrez, P. M. (2004). An investigation of difference between self-injurious behavior and suicide attempt in a sample of adolesce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4(1), 12-23.
- Nock, M. K. (2010). Self-injur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339-363.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21208.131258>
- Nock, M. K., & Kessler, R. C. (2006).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versus suicide gestures: analysis of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3), 616.
<https://doi.org/10.1037/0021-843X.115.3.616>
- Nock, M. K., & Prinstein, M. J. (2004). A function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self-mutilative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5), 885.
<https://doi.org/10.1037/0022-006X.72.5.885>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https://doi.org/10.1080/10705510701575396>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https://doi.org/10.1016/j.cedpsych.2006.10.003>
- Peel, D., & McLachlan, G. J. (2000). Robust mixture modelling using the t distribution. *Statistics and computing*,

- 10(4), 339-348.
<https://doi.org/10.1023/A:1008981510081>
- Pipher M. (1998). Reviving Ophelia: Saving the Selves of Adolescent Girl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2), 291.
- Ross, S. & Heath, N. (2003). Two Models of Adolescent Self-Mutil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3(3), 277-287.
- Rotolone, C., & Martin, G. (2012). Giving up self-injury: A comparison of everyday social and personal resources in past versus current self-injurer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6(2), 147-158.
<https://doi.org/10.1080/13811118.2012.667333>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https://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461-464.
- Skegg, K. (2005). Self-harm. *The Lancet*, 366(9495), 1471-1483.
[https://doi.org/10.1016/S0140-6736\(05\)67600-3](https://doi.org/10.1016/S0140-6736(05)67600-3)
-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11(89-106), 60.
<https://doi.org/10.1017/CBO9780511499531.004>

Differences in Nonsuicidal Self-injury behaviors according t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Adolescents: Focusing on Latent Profile Analysis

Myung-Hwa Kim¹

Chang-Hyun Lee²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a professional counselor¹

Hana Clinical Psychological Research Institute/ Director²

This study explores the difference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lf-harm behaviors frequency in group types after classifying group types according to majo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data on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collected from 863 high schools nationwide and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he difference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lf-harm behavior frequency was confirmed through a one-way ANOVA based on the profil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adolescents could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five groups: risk, semi-risk, emotional dysregulation, mild level, and normal. Second, the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self-harm behaviors between the latent groups were significant. Third, the gender ratio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ts implications in counseling practice,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Nonsuicidal self-injury behaviors, Depression, Anxiety, Difficulty in emotion regulation, Experiential Avoidance, Latent profile analysis